

국내 휘발유 가격 OECD 평균 상회

OECD 평균치보다 40% 이상 높아 ... 경유 · 천연가스 판매가격도 비싸

국내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월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에너지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석유제품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의 판매가격이 OECD 평균치에 비해 높았다.

영국과 프랑스 · 독일 등 유럽지역 국가들보다는 낮았지만, 미국 · 캐나다 ·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달러로 환산해보면 국내가격은 1.641달러로 OECD 평균인 0.986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그밖에 미국 0.739달러, 캐나다 0.948달러, 일본 1.187달러 등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수송용 경유의 판매가격도 한국이 1.367달러인 반면, OECD 평균은 1.188달러, 미국 1.188달러, 일본 1.009달러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천연가스 판매가격도 산업용(달러/107kcal)은 OECD 평균(321.0달러)과 비교해 약 71% 높은 555.1달러로 조사됐다. 다만, 가정용은 713달러로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국내 전력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용 전력가격(달러/kWh)은 0.102달러에 불과해 미국(0.106달러)과 비슷하고 영국 0.219달러, 프랑스 0.158달러보다 매우 낮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8>